경기둔화(금리우려 완화)+주도주 체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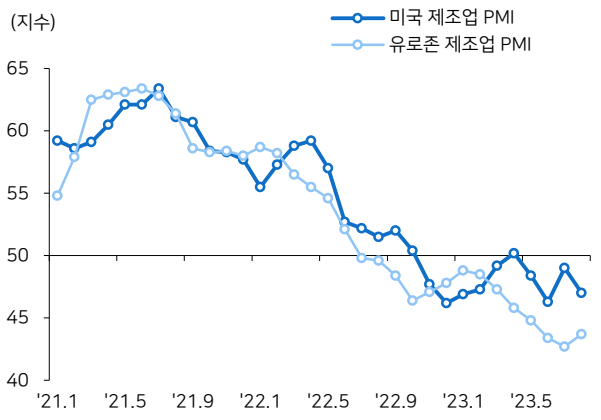
전일 발표된 미국, 유로존 8월 종합 PMI는 시장기대 하회(미국 50.4 vs 예상 52.0, 유럽 48.5 vs 47.0). 민간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둔화 확인.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물가지표는 소폭 상승했으나, 고용이 정체. 두 지역 모두 그동안 버텨왔던 서비스업 위축이 두드러졌음. 유럽은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독일에서 COVID 이후 가장 가파른 경기 둔화 나타남

다만 주식시장은 경기둔화 우려에 주목하기보다 금리 우려를 덜어내는 모습. 23일 미국채 10년 금리는 전일대비 13bp 하락한 4.20%. 주식시장에서 금리 우려를 키웠던 수준인 전고점(4.25%)를 하회했다는 점에 주목. 유로존 PMI 발표된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NASDAQ100 선물도 미국 시장 개장 전부터 0.5% 상승하고 있었음. 미국 PMI가 발표된 이후 금리 낙폭 확대, 미국 시장 개장 이후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 달러 인덱스는 유럽 PMI 발표 이후 상승하다가 미국 PMI 발표 이후 다시 하락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 2Q23(5~7월) 실적 발표. 매출은 135.1억 달러 기록, 전분기대비 88%, 전년대비 101% 성장, 시장 컨센서스 11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 데이터센터 매출이 103억 달러(vs 컨센서스 79.8억 달러) 기록한 부분이 서프라이즈의 핵심. 순이익은 61.9억 달러(GAAP)로 전분기대비 203% 증가, EPS는 2.70달러(vs 컨센서스 2.09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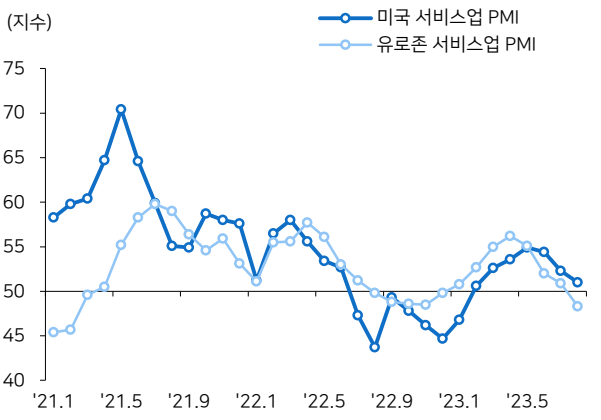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매출 성장. 시장 변곡점을 만들었던 1Q 실적 발표 당시, 2Q 매출 컨센서스는 71.5억 달러였으며, 이보다 34억 달러 많은 110억 달러 가이던스(+54% 상향)를 제시했고, 이를 이번 실적발표에서 25억 달러 상회했음. 이번에는 3Q23 매출 컨센서스 126억 달러보다 34억 달러 많은 160억 달러(+27% 상향) 제시.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는 5월 말 실적발표 이후 미국 증시 변곡점을 형성했을 당시 영향력에 준한다는 생각

그림1 미국/유로존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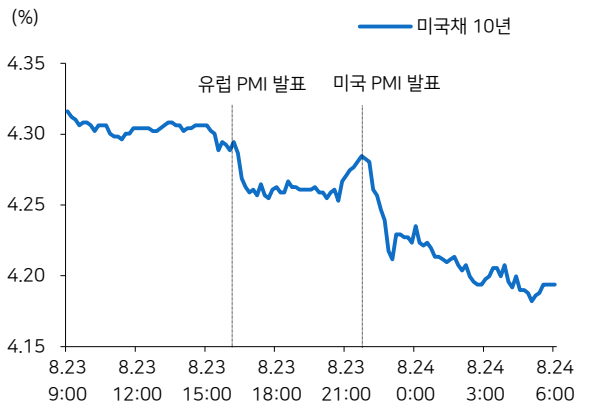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유로존 서비스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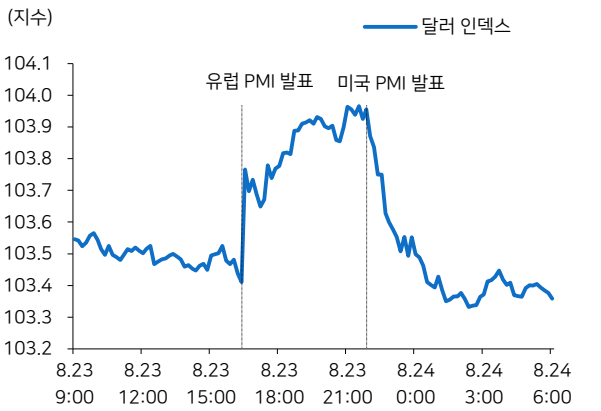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채 10년 금리 전일대비 13b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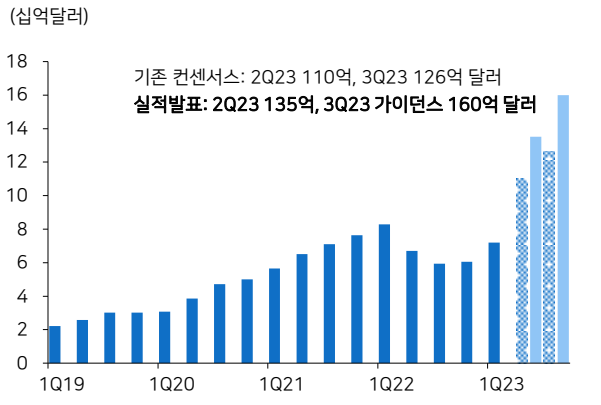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달러 인덱스는 유럽/미국 지표 발표에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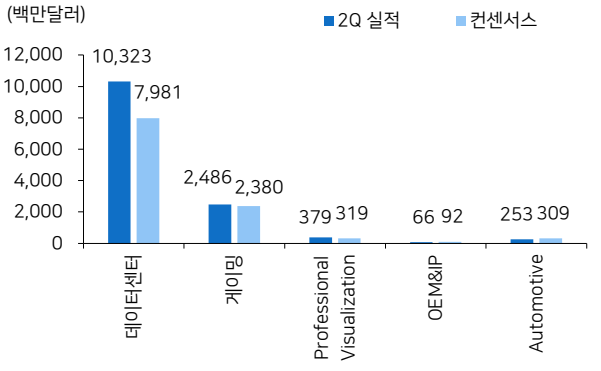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엔비디아 매출 및 가이던스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2Q23 엔비디아 사업 부문별 매출 및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